보 도 해 명 자 료
('16. 7. 2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< 스마트그리드 체험센터 > (조선일보 A01면)

---

1. 기사내용

□ 제주 구좌읍의 첨단 스마트그리드 시설은 대부분 철거되거나 내버려짐

□ 정권이 바뀌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순식간에 사라지고, 스마트그리드 관련 사업 대부분 중단 또는 방향전환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

□ 스마트그리드 제주실증 사업('09~'13)은 종료 후 실증사업 결과를 다방면에서 활용 중

○ 참여 경험을 활용해 실제 사업을 하거나 관련 장비를 활용해 신규 서비스 개발에 사용 중

* 실증사업을 통해 검증된 수요반응(DR) 사업, 빌딩 에너지관리 시스템(BEMS), 공장 에너지관리 시스템(FEMS), ESS를 통한 신재생 출력안정화 시스템, 스마트가전, 전기차 렌터카 등의 사업모델은 실제 참여기업들이 사업화 추진

○ 일부 설비는 스마트그리드 운영 요소간 통신 등 정합성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에 사용

* 실증사업에 활용된 한전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, 통신회사들의 스마트미터(AMI) 인프라 등은 스마트그리드 표준개발 과제에 활용 예정

□ 국내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실증 및 보급 단계를 지나 확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3개 지역에서 8개 컨소시엄이 「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」을 추진 중

○ 아울러, 정부는 「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」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, 전기차 등 스마트그리드 핵심 요소를 수출산업화하기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*을 강화하고 있음

* (7.5) 「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」 발표
('7.7) 「전기차·수소차 발전전략」 발표 (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) 등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김성열 과 장(044-203-5260)
장 원 사무관(044-203-5265)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7-26 11:11:39